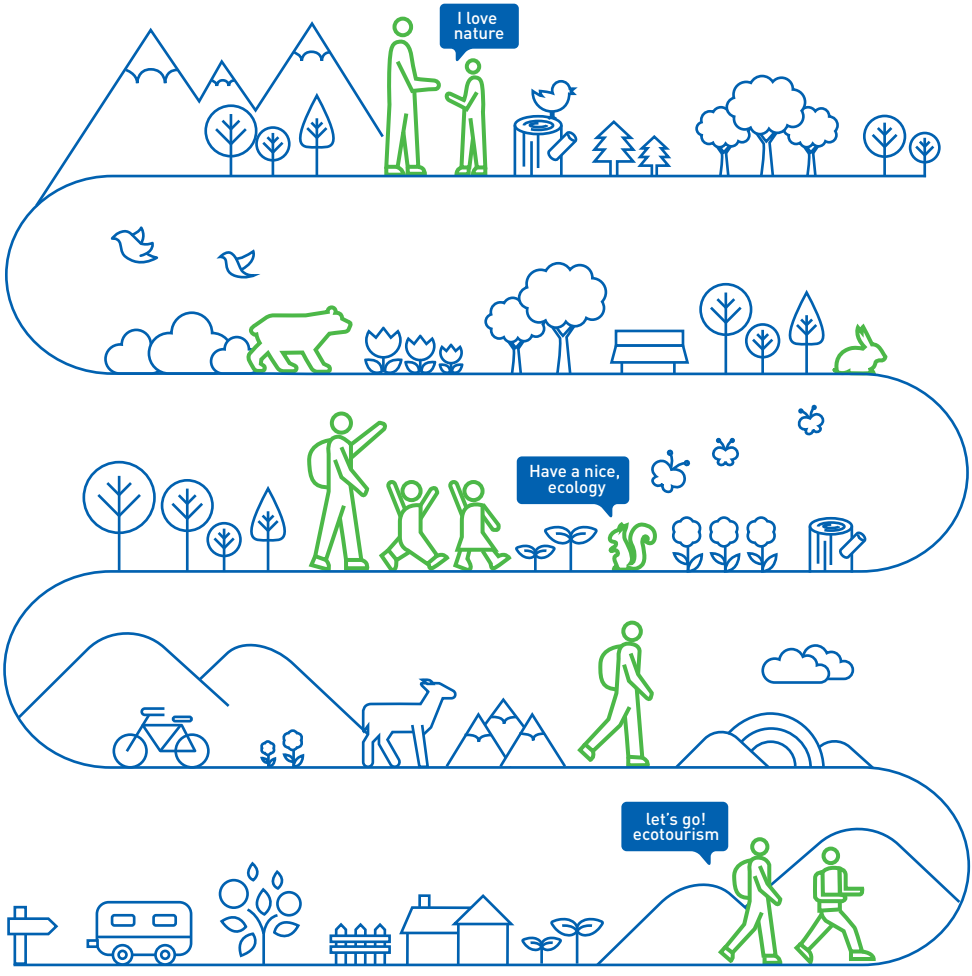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관광 이야기

2015년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수기집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BUKHANSAN NATIONAL PARK ECO-LEARNING INSTITUTE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관광 이야기

2015년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수기집





발간사

가을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입가에 웃음이 머금어지는 행복한 계절, 가을입니다.

여가생활 패턴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자유학기제 및 관광주간 도입 등으로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관광인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관광의 생생함과 감동을 일반인들이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생태관광의 간접체험을 돕고자 생태관광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기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생태관광 홍보관 및 팸투어 운영, 여행사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및 관계자간 정보교류를 위해 2015년 10월에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1개 국립공원에서 41개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약 5만천여 명의 국민이 국립공원의 자연 및 역사문화 체험에 참여하여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수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 방법을 모색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증진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여행인 생태관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생태관광 체험수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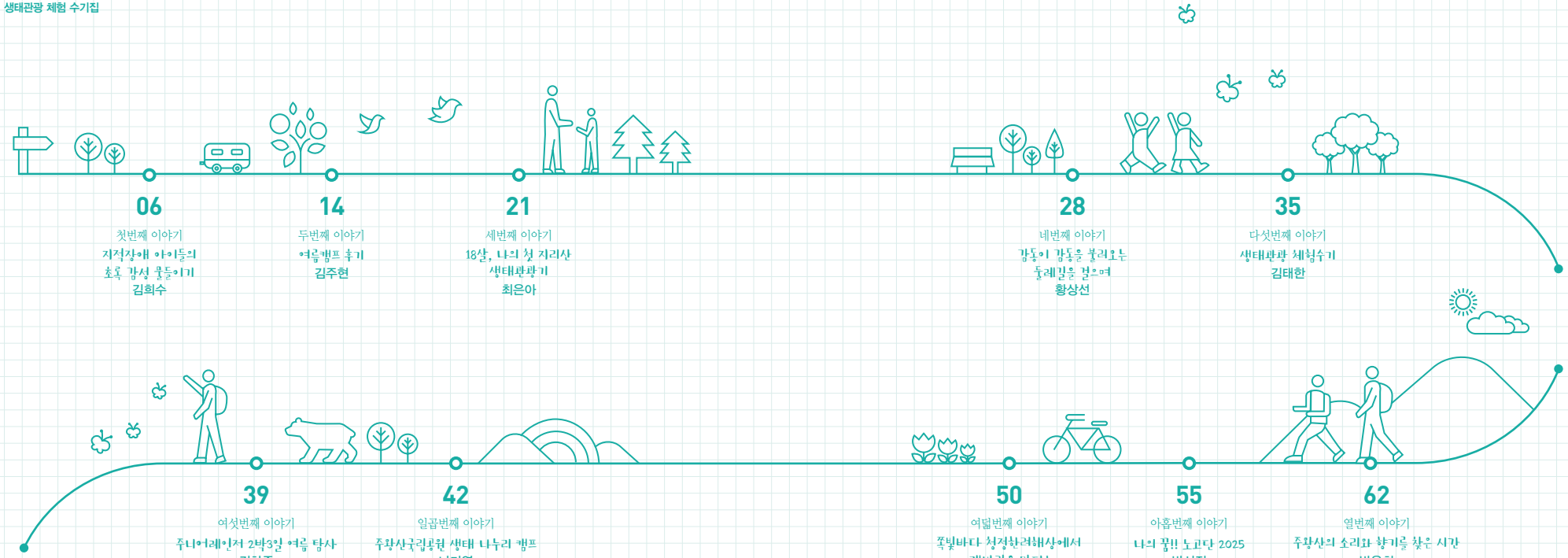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장

이 규 성

contents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관광 이야기

2015년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수기집



06
첫번째 이야기
지적장애 아이들의
초록 감성 물들이기
김희수

14
두번째 이야기
여름캠프 후기
김주현

21
세번째 이야기
18살, 나의 첫 지리산
생태관광기
최은아

28
네번째 이야기
감동이 감동을 불러오는
둘레길을 걸으며
황상선

35
다섯번째 이야기
생태관광 체험수기
김태한

39
여섯번째 이야기
주니어레인저 2박3일 여름 탐사
김하준

42
일곱번째 이야기
주왕산국립공원 생태 나누리 캠프
나미영

50
여덟번째 이야기
쪽빛바다 청정한려해상에서
갯바람을 맡다!
류정혜

55
아홉번째 이야기
나의 꿈!! 노고단 2025
박서진

62
열번째 이야기
주왕산의 소리와 향기를 찾은 시간
박은희

67
열한번째 이야기
제인구달이 된 코풀고 선생님
최성우

75
열두번째 이야기
국립공원에서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최종미

81
열세번째 이야기
월출산 국립공원을 다녀오며
한예주

84
열네번째 이야기
내 생태관광의 시작점
하진우

첫번째 이야기

지적장애 아이들의 초록 감성 물들이기

김희수

최우수상

"선생님! 어제 TV 뉴스에 주왕산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 또 언제 주왕산 가요?",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여 인사도 잊은 채 대뜸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이 말하는 주왕산은 지난 4월 21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다녀온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겨우내 잔뜩 움츠려진 몸과 마음이 상쾌한 봄기운을 맞이한 봄날의 주왕산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하고 따뜻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특히, 3년간 우리 아이들을 봄기운 맞혀주고, 때로는 가을 볕 쬐여주신 국립공원 생태 해설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학교 선생님들과는 다른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선생님? 우리 가을 소풍은 청량산 가요? 주왕산가요?", "주왕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지요?" 아이들이 아는 제일 큰 산은 아마도 주왕산인 것 같다.

아무리 특수학교의 교육 목표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교육 중심이라고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해서 왜 스트레스가 없겠는가? 하물며 매일 똑같은 일상의 교사인 나조차도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상쾌한 자연을 느껴보는 것이 어느덧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듯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태를 만져보고, 느껴보는 경험은 지적장애 아이들의 일상화된 소외감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경험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어른에게는 일상의 재충전을 위한 심폐소생술 같은 소중한 체험이다.

자연이 친구이자 생활도구, 시골학교 선생님들과 지적장애 아이들…

2009년 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북 소재의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보통의 특수학교가 그렇듯 우리 학교도 일과 중에는 항상 지적장애 아이들 특유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무엇인가에 싫증 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학교 주변은 산과 논, 밭, 개울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 봄이면 산과 논두렁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쑥



이며, 냉이를 캐러 다니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우러 학교 뒷산에 오른다. 지적장애 아이들의 초록마음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농촌지역 학교의 특성상 학교 주위에는 마땅히 그 또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는 학교 앞개울과 뒷산에서의 이른바 '자연놀음'이 유일한 놀이터이자 오락거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우리 학교에는 도시의 다른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 방법이 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매월 '학교 가꾸기' 행사를 통해 학교 정원 곳곳에 사과나무를 심고, 배추 씨를 뿌리고, 각종 꽃과 채소를 가꾸는 행사가 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각 반에서 연중으로 실시하는 생태 체험은 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자연 · 생태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

우리학교의 초록 마음 물들이기 교육과 더불어 해매다 학년을 달리하여 참가하는 주왕산 생태나누리 체험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초록으로 물들여주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한다. 시골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지만, 여느 국제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부럽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못지않게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지적장애 아이들의 안목을 넓혀 주는 계기교육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참가하여 자연과 국립공원 공단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태나누리 체험 교육에 참가한 나의 노력도 한몫했으리라는 자부심을 가져본다.

초록 자연은 세상 모든 이들과의 소통 도구

특히 아이들이 연 1회~2회 만나는 생태나누리 해설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이파이브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통의 노련함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과 해설사 선생님들은 아주 가끔 만나지만 무척이나 반가운 지방에 사는 친구처럼 가늘고 긴 사제의 우정을 쌓아간다. 아이들과 해설사 선생님들의 소통에서 나는 초록 자연의 은혜(恩惠)가 모든 인간사의 거리낌, 서먹서먹함, 조심스러움을 무장해제 시키는 또 다른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모든 교과목이 고도의 이해력과 지식이 요구되지만, 지적장애인 교육의 효과로서 자연 체험 교육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장체험 학습 형태인 생태나누리 체험은 단체 활동이 교육의 주축이 되어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진 숲 탐험을 통해 전신 운동의 효과를 얻고, 토피어리 만들기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대 · 소근육 협응력, 그리고 협동심을 향상시킨다. 또 각양각색의 이름 모를 풀, 벌레 등 작은 생명인들 왜 의미가 없겠는가? 자연 속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체를 만져보며 느껴보는 것은 자연에 대한 범과학적 기본 지식을 기르고, 나아가 신비감과 경외감을 느끼는 소중한 기억이 된다. 이렇듯 생태나누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모든 교과목의 수업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처 깊은 아이들의 일상화된 소외감과 패배감, 자연 체험은 아이들의 치료제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일반학교에서 왕따와 학습부진아, 문제아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전학 온 경우가 많았다. 내가 담당한 고등부에는 유난히도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이 많았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과거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도 등 범죄에도 연루된 아이들이 있었다. 자신의 의사표현에 소극적이고, 모방심리에 흔들린 지적장애 아이들이 쉽게 '불량 학생'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저런 곳에서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일상화된 아이들이었다. 개구쟁이처럼 장난치다가도 느닷없이 "나 전에 있던 학교에서 애들한테 물고문 당했어.", "아이X! 집에 가



면 또 동생 밥해주고, 자형 일 도와줘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적당한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못 들은 척했었다. 아이들의 어둠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거북하고, 불편했다. 마치 TV에서 잔인한 장면이나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듯이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채널 돌리듯 무시했었다.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었다. 아이들의 어두운 기억의 상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했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어두웠던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어둠을 숨기려고 의례 공격적이고, 불량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자기방어의 최우선 방법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공격적이고 닫힌 마음의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는 광활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체험은 내가 만나 본 아이들의 모습 중에 가장 순진한 모습이었다. 이 또한 자연이 무장해제 시키고, 활짝 열어 놓은 아이들의 마음일 것이다. 주왕산 캠프장 들판에서 자



투리 시간에 조그마한 깡통을 세워두고 뒤섞여 축구하는 모습에서 부모님과 선생님, 또래 친구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로로 된 벽을 허문 아이들의 모습이다.

아이들의 교육 과정 속 초록 감성 키우기 교육이 국립공원 후원 생태나누리 교육을 통해 감성 염색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의 시간이 되었다. 태고적부터 함께였던 자연이다. 지적장애인과 우리,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서로의 언어와 생각이 통하지 않는 불편함을 매일 각오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이 익숙해진 아이들과 교사들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특수교사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언어소통의 장애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지적장애 교육 현장에서 항상 경험하는 공통의 불편함이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기른 전문성과 자연을 매개로한 소통은 언어와 인식의 차이를 없애는 "마음의 대화"를 계획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해설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나뭇가지 한 잎, 하늘

소 한 마리에도 금방 친구가 되었듯 초록 자연의 은혜(恩惠)가 모든 인간사의 거리낌, 서먹서먹함, 조심스러움을 무장해제 시키는 교육적 소통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다음 날 있을 지적장애 아이들의 안전한 주왕산 현장학습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하던 6년 전 초짜 교사의 가을밤이었다. '교육학개론' 책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솔교사의 역할을 생각하며 늦은 밤까지 주왕산에 대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었다. 찾다가 막히면, 학년 부장님이 작성하신 현장학습 계획표를 다시 읽어보았다. 첫 발령받아 근무하던 이 가을이었다. 발령 후 첫 현장학습에 아이들처럼 설레던 6년 전 초임 시절의 가을이 생각난다.



두.번.째. 이.야.기.

여름캠프 후기

김주현

우수상

일반적으로 관광이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화려하거나, 짐이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여행을 생각한다. 크게 마음을 먹고, 훌쩍 떠난다는 개념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장비도 충분히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다는 생각도 적지는 않다. 또한, 돈도 넉넉히 필요하고 마음먹고 무겁게 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관광이란 것이 가볍게 간다는 개념이라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생태탐방' 이라는 색다른 개념의 여행이 등장하였다.

생태탐방이란, 자연환경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발전도 도우며 여행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 마인드를 지닌 색다른 형태의 체험이다. 생태탐방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생태탐방의 개념 자체가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연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며 즐기는 레저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도 커다란 메리트 중 하나이다. 생태탐방의 마인드는 환경손실의 최소화이다. 그것이 최우선적 가치인 만큼, 식생활은 탐방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취급한다. 탐방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역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수도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탐방지역의 수입원은 증가하고 재정적 이윤도 늘어난 상태로 확보된다. 거기다,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산이 많다. 이 자연환경을 보편화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욱 진흥시키는 방법으로는 생태탐방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 산이라는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시키고 내수를 증가시켜줄 좋은 수단은 생태탐방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내포한 생태탐방의 형식으로 주니어레인저 소속으로 '생태탐방 위아래'란 주제를 가지고 지리산으로 2박 3일간의 캠프를 떠났다. 출발을 위해 8시 반까지 연수원 집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수 위원들의 지각으로 실질적 출발은 9시 반 경이 되어서야 할 수 있었다. 약 5시간

동안의 고속도로 탐방은 섬진강에 도달해서야 끝을 볼 수 있었다.

섬진강에 도달해서는 레프팅 장소로 향하였다. 5~6분 동안 짤막한 안전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강물결 위에 보트를 띄웠다. 다른 교관님들에 비해 조금 더 활발하시고 말투가 특히 귀에 박혔다. 전라도 지역임에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교관님의 억양은 뭔가 모르게 귀에 때려박는 듯 했고, 거칠었지만 매력적이었다.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강물에 띄운 배 위에 올라탔다. 올라타서 노를 잡고 하나 둘 구령에 맞춰 물살을 저어갔다. 구름은 잔뜩 끼었지만, 한여름의 햇볕은 사람의 힘을 시험시키기 마련이다. 20분쯤 젓고 나니 모두 다소 지쳤다. 그럴수록 교관님은 구령도 크게 외치라 하시고 말도 해주시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셨다. 한 40분 정도 저어갔을까, 모든 팀이 물에 뛰어들었다. 물속에 들어가니 확실히 더운 것도 줄었고 노를 젓던 피곤함도 조금 줄어들었다. 물싸움을 하기도 하고 헤엄도 쳤다. 물속에서 노는 시간은 금세 가버린다. 물에 젖어 묵직해진 몸을 기울여 보트에 올라타고 노를 잡으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다. 얼마 젓지 못하고 힘이 빠졌다. 하지만, 빠진 힘을 잡고 노를 저어갔다. 반 시간 정도 저어가서 모래톱에 보트를 세워놓고 보트를 발판삼아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물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을 양껏 즐겼다. 즐거운 자유시간도 한때. 자유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 우리조가 앞서가는 듯하자 교관님은 우리 조에게 노젓기를 멈추고 자유시간을 주었다. 물속에서 놀 때는 모두 힘이 넘친다. 20분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부지런히 노를 저어갔다. 중간중간 제트스키가 와서 우리 보트를 밀어줘서 힘을 소량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1시간 가량 목표지까지 노를 저어가기는 힘들었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강물도 잔잔했다. 그래도 힘을 쥐어짜 가며 목표지에 갔을 때의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래프팅을 하면서 섬진강에 날아오던 새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왜가리 같은 새들이 제법 있었다. 잔잔한 강변에 앉아서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기도 하고 그저 가만히 서서 인간구경을 하는 듯도 하였다. 자연의 풍경을 구경하며 협동심이란 공동체적 가치의 힘을 길러주었던 체험이었다.

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털썩 올라탔을 때는 몰려오는 피곤함에 눈이 감겼다. 하지만, 감은 눈이 만족하기도 전에 버스는 우리가 저녁거리를 사야 할 마트 앞에 멈췄다. 덜 풀린 몸을 끌고 버스에서 내려 장 보는 것을 도왔다. 2일간의 숙소가 될 연수원에는 금세 도착하였다. 연수원에 내려 싸들고 온 짐들을 방에 풀고 저녁 조리를 시작하였다. 나는 요리에 일가견이 없는지라 그저 구경이나 하고 주는 밥이나 먹었다. 어른의 개입이 없었지만 맛은 제법 좋았다. 레프팅이 주는 피곤함이 큰 하루였다. 그렇지만 환경적 손해를 크게 끼치지 않고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생태탐방의 장점을 접할 수 있었다.

2일차에는 아침 8시쯤 기상하였다. 평소 기상시간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어제의 피로 때문인지, 눈이 쉽게 떠지질 않았고 몸도 무거웠다. 눈을 겨우 뜨고 아침을 밀어 넣은 다음 성삼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눈꺼풀이 감긴다. 성삼재에 다다를 때까지 눈은 뜨이지 않았다. 성삼재에 도착이라는 방송을 듣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다다른 성삼재에서는 가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구름 속에 안긴 산을 바라보니 경이로웠고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감상에 젖어가면서 빗방울도 점점 세지며 몸을 적시고 있었다. 급하게 나눠준 우의를 입고 노고단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올라가면 갈수록 길도 가팔라지고 빗방울도 거세졌다. 빗방울이 거세져서 자연물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가파른 길과 미끄러운 돌계단을 꾸역꾸역 밟아가며 올라간 끝에 노고단 대피소에 도달하였다. 대피소 처마 밑에서 비를 잠시 피한 다음, 노고단 정상을 향해 서서히 올라갔다. 노고단 정상 직전 인공조림지에는 예쁜 꽃들이 제법 있었다. 인공조림지라 야생화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좋았다. 산이라 그런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우의를 벗길 듯이 세차게 바람이 불었다. 사실, 세차게 부는 바람과 거세게 떨어지는 비 때문에 풍경이 눈에 크게 들어오진 않았다. 사실, 등산치고는 힘들다는 느낌은 적었으나 날씨가 나를 힘들게 한 경우였다. 완전히 노고단 정상에 가니 그래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들었다. 내려오면서 보니, 좀 더 아름다운 꽃들이 보였고, 나무들이 보였다. 물론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둑어둑 한 것이 아쉬운 점이긴 했지만, 내려갈수록 비도 얇아지고 한번 올라갔던 길이라 내려가는 길이 크게 고단하진 않았다. 내려가면서 비에 젖었던 곳도 조금씩 말라가서 내려왔을 때에는 옷은 거의 다 마른 상태였다. 땀과 섞여 스며드는 비가 산행을 힘들게 했지만, 빗길 속 산행이라는 분위기는 자연풍광을 보며 감상에 빠져들게 만들기에는 충분히 감성적인 환경이었다.

비에 지친 산행을 한 후에는 산채비빔밥을 점심으로 먹었다. 평소에도 비빔밥을 좋아하지만, 날씨에 지친 탓인지는 몰라도 더욱 맛있게 먹었다. 산행을 마친 후에 올라탄 버스에서는 약간의 피로감이 쌓였다. 버스에서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버스에서 풀지 않은 피로감은 연수원 옆에 있는 종복원 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몰려왔다. 물론 좋은 영상이고 교육을 제공해 주셨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졸음은 참기에는 너무 떼로 몰려왔다. 꾸벅거리다 정신을 잡았을 때에는 교육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다. 졸음으로 인해 교육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산행을 통해서 자연 풍경은 학교에 다니면서 보지 못한 풍경을 실컷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고단 등반은 강한 성취감을 주었다. 물론 산행을 하며 쓰레기는 모아서 버리고 적당량의 간식만 구비해서 산행하였다. 적당량의 간식은 산행에서 떨어지는 힘을 올려주는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던 산행이었다. 힘들게 올라가서 등반하려고 애쓰는 목표지향적인 등반이 아닌, 즐기면서 자연을 누릴 수 있던 산책 같던 산행이었다.

종복원 기술원에서는 교육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자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은 낙안읍성 방문으로 최종 일정을 수행하였다. 낙안읍성은 대한민국에 보존된 몇 되지 않는 읍성이다. 읍성은 20C 초,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 계획으로 인해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낙안읍성은 도시개발 지역에서 떨어진 지점이었던 덕에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낙안읍성에서

는 역사적인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 동헌의 양식이라든지, 위패의 이유 등 조상들의 예법을 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낙안읍성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3일간의 일정이 끝났다. 버스에 올라타서 장장 6시간을 달린 뒤에야 도봉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 사실 모두 피곤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친환경적, 교육적, 경제적 세 가지의 효과를 모두 수확할 수 있었던 모델의 체험학습으로 의미가 있었다.



세.번.째. 이.야.기.

18살, 나의 첫 지리산 생태관광기

최은아

우수상

생태관광은 그 의미를 알고 다니면 더 좋은 것 같다. 생태관광은 거창한 것일까? 알고 보면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다니는 많은 부분은 알게 모르게 생태관광과 많은 연관이 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감탄하고 생태를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생태관광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니어레인저활동의 일원으로서 지리산으로 '지리산 위 아래, 생태관광'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환경캠프를 떠나게 되었다. 지리산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되고 설레었다. 이번 2박 3일 지리산에서의 시간이 어떤 의미의 생태관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하며 미리 관련 책자들도 보고 다짐을 하며 지리산에서의 첫날을 시작했기에 더욱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첫날은 이동시간이 길었던 탓에 숙소인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 가는 길에 섬진강 래프팅에 참여하고 장을 보고 친구들과 밥을 해먹는 것으로



하루가 끝이 났다. 그 중에서 래프팅은 나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기대한 일정이었다. 안전교육, 안전체조를 함께한 후 래프팅을 했는데, 비가 한동안 오지 않은 상태라 물이 얕아 보트와 탑승자들은 강물의 어느 정도까지 직접 걸어갔어야 했다. 굉장히 돌이 미끄러웠던 게 기억에 남는다. 샌들까지 자꾸 벗겨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래프팅은 자연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 급류타기,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키장이나 골프장과 같이 산을 아프게 하며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레저활동들과는 다르게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대로의 환경을 활용한 재미있는 레저활동들이 더 다양해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라는 생각을 했고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느릿느릿 노를 저어가며 만끽하는 경치들과 다른 탑승자들과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은 그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한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섬진강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했다.

첫날의 저녁은 네 개로 나누어진 조별로 요리를 해서 먹기로 되어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장에 들려 조별로 음식재료를 샀다. 우리 조의 원래 메뉴는 스파게티였는데, 알고 보니 조원 중 한 명은 크림스파게티를 못 먹고 한 명은 토마토스파게티를 못 먹어서 장을 보면서 라볶이로 메뉴를 바꾸었다. 여행을 떠나며 재료를 미리 사갈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현지 소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되게 하고 그 중 일부가 생태계 보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위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그 지역에서 사야 한다. 그런 의미를 곱씹으며 장을 본 후 네팀 모두 숙소에 돌아와 요리를 맛있게 해먹었다.

이번 환경캠프에서 묵은 숙소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면, 지리산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묵었다.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었는데 눈 앞에 펼쳐진 연수원 건물은 너무 아름다웠다. 늘 생각하지만, 국립공원의 색깔과 건물은 자연과도 잘 어우러지고 예쁜 것 같다. 내부도 깔끔하고 세련되었는데, 평일인데도 숙박이 다 꽉찼었다. 나도 나중에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오면 지리산 연수원에 숙박예약하면 되겠구나 했다. 따로 친구들이랑도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연수원 숙소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은 취사문제였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냄비랑 후라이팬이 부족하진 않을까 코펠도 들고오고 했는데 방마다 냄비 2개, 후라이팬 2개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4개의 조, 20명이 넘는 분량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요리한 각기 다른 먹거리를 조별끼리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저녁시간이 흐르고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와 함께 첫날 밤이 깊어갔다.

둘째 날에는 지리산에 대해 해설을 듣고 산을 조금 올랐다. 지리산 남부 탐방안내소에 들러 지리산이 걸어온 역사를 듣고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역사 속 지리산의 모습과 역할을 알고 산행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사진전도 열리고 있어 눈호강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 후 성삼재까지는 버스 이동을 했는데, 나는 버스에서 내려 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까 사진전에서 감탄한 그 풍경들이 내 눈 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던 것이다. 아름다운 산능선과 산에 걸린 구름들에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앞으로 산에 많이 다니고 여러 명소들을 다녀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꽤나 높이 올라왔는지 날씨가 차가워졌다. 에너지 보충을 위한 소량의 간식과 우비를 작은 가방에 넣고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비도 살짝 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추워져 보온으로라도 우비는 입어야

했다. 낙오자 없이 노고단까지 오르는데 성공했고, 성삼재까지 데려다 준 버스에 감사했다. 화엄사부터 올라갔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도 나름 어렵사리 도착한 노고단에서 친구들과 단체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노고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풍경 좋은 곳이 나온다길래 다같이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었고 겨울에나 느낄법한 추위를 한여름에 겪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지나가던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아이가 많이 춥다며 우비 남는 것이 없냐고 물어왔던 것이다. 그때 얼른 내 우비를 벗어 아이를 주었고, 몸은 추워졌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곧, 내 몸도 한결 나아졌었는데 고맙게도 같은 일행친구가 자기는 괜찮다며 많이 추워보인다고 또 내게 우비를 건네준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마음이 훈훈한 것 같다. 주고받는 우비 속에 추억이 싹텄다.

산행을 마치고, 성삼재로 다시 내려왔다. 아까 우비를 내게 내어준 친구의 다리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산행한 듯 싶었다. 친구는 그때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휠체어와 친구 도움을 받아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다리로 어떻게 산행을 끝마친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슬프게도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없이 숙소 근처에 위치한 종복원기술원으로 이동했다.

종복원기술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로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반달가슴곰을 실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며 기술원에 도착했는데, 아쉽게도 그날이 반달가슴곰들의 건강검진날이라 실제로 볼 수는 없었

다. 하지만, 복원사업의 경과와 종복원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었고, 귀여운 반달가슴곰의 공간을 보며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점 더 지리산에 더 많은 개체수의 반달가슴곰이 뛰놀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복원과 보존에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리산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생각을 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조금 더 조심한다면 지리산은 또 한번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저녁식사는 다함께 지역음식점으로 나가, 맛있게 외식을 하고 왔다. 밥다먹고 숙소에 가야 될 때쯤 비가 내렸다. 식당에서 주신 커다란 비닐을 뒤집어쓰고 숙소까지 뛰었는데, 친구랑 둘이 비닐을 쓰고 비를 맞으며 그러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약간은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다. 차로 이동하는 것 못지않게 숙소에 재빨리 도착했다.

저녁에는 다같이 모여 사진과 시의 합성어인 '포토포임' 시간을 가졌다. 사진에 대해 각자의 학생들이 써내려간 '시'들은 각양각색이었고 정말 인상깊었다. 그 중 몇 개는 정말 내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초등학생 때는 시를 쓰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여러 편의 시들을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 비도 오고 정신도 없어서 각자 찍은 사진으로 포토포임을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다. 자연 속에서 지난 일정도 정리하고 추억하며 시를 쓰는 것, 정말 멋진 것 같다. 이번 생태관광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다. 바로 한명씩 마니또를 정해 그 사람을 챙겨주고 사진을 찍는 미션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진들이 나왔고 그 사진으로 제작한 영상을 보며 자신의 마니또는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걸어온 일정들을 되돌아보았다.

마지막날은 낙안읍성에서 해설도 듣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며 오전시간을 보낸 후 2박 3일간의 지리산 환경캠프의 막을 내렸다. 우리의 슬로건인 '지리산 위, 아래! 생태관광'에 맞게 잘 돌아다니고 지역의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풍경도 많이 보았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던 내 18살의 첫 지리산 이야기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웠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네.번째. 이.야.기.

감동이 감동을 불러오는 둘레길을 걸으며

황상선

우수상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산을 좋아했던 나는 우연히 은평구를 지나다가 눈앞에 보이는 북한산의 절경에 반해 사흘이 멀다하게 그곳을 찾은 지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산에 대한 사랑과 가슴앓이는 내게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충동을 안겨주었고, 그 덕분에 베란다 밖으로 북한산이 훤히 바라다 보이는 곳으로 이사도 했다. 그래서 북한산을 마음껏 오르내리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제2의 인생의 꿈도 이곳에서 꾸었던 것 같다.

평생 몸 담았던 직장을 몇 년 전 퇴직했지만, 워낙 산을 좋아하고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던 나는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동분서주하였다. 평생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좋아하던 일의 강사도 나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공방도 다녀보고, 악기와 서예도 배워 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 한편 가득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의 말을 듣고 머리에 '아!'하고 번뜩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봐라' 바로 그것이었다.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혜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회를 위해 봉사 할 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것도 나의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친구인 북한산에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는 스스로 북한산지기가 되었고, 닉네임도 북한산sun으로 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산을 산행하다 등산객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보았다. 비봉능선에서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 돌로 덮어주어 나무를 보호 해야한다'는 의견과 '돌로 덮으면 오히려 뿌리가 더 큰 상처를 입어 나무가 죽게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로서는 아무 말도 거들 수가 없었다. 내가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과정의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살리듯 열심히 공부하며 자연생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갔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새소리의 구별, 개구리 울음, 소나무와 참나무의 다툼, 천이의 과정,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등등… 언제 이 나이에



다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시험 볼 준비까지 하게 되랴? 과정수료 통과 시험에 긴장도 되었지만 즐거웠고 행복했다. 같은 반에서 연수받은 수강생들도 모두 긍정적이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이들에게서도 많이 배웠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 후 북한산을 더욱 자주 찾게 되었다. 어느 날 둘레길에서 탐방객이 '길가에 죽은 고목을 보기 싫게 방치해 둔다'고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 '이 썩은 나무도 자연생태계에서는 귀중한 보물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 벌레들과 동물들의 집이고, 먹이랍니다.'라고 자신있게 그 분을 이해시킨 적이 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북한산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은 뿌듯함과 감동을 맛보았던 것 같다. 아마도 북한산지기로서의 임무를 톡톡히 한 기분 탓인지 그 날은 하루 종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5월 30~31일에는 북한산생태연수원에서 실시한 「국립공원에서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와! 이런 행사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자연 생태에 대한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 및 역사, 문화 자원을 조사하여 해설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학생, 생태전문가, 해설사가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생태관광 지도로 제작되어 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라는 기발한 기획 의도가 들어 있었다. 원래 둘레길을 만들 때 탐방객의 수직이동이 아니고 수평이동을 유도하여 1,000만 명이 찾는 북한산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산둘레길은 경관도, 특별한 자연자원도, 문화도 없는 삭막한 그저 산길이었는데 여기에 스토리를 만들고 감동을 주어 의미있는 북한산, 그리고 좀 더 생동감있는 북한산으로 탈바꿈시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위로받고 좀 더 머무르게 하며, 다시 찾는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참으로 멋진 프로젝트였다.

1박 2일의 「국립공원에서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행사는 다양하고, 흥미진진하고, 시작과 끝맺음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다.

우선 구성원이 재미있었다. 가족 단위 시민, 학생, 자연환경해설사, 생태전문가. 누가 봐도 서로를 아우르는 구성이었으며, 둘레길을 걷기 전에



는 프로그램 진행 의도와 주의 사항, 서로의 연락처 등을 주고받고 조별 모임에서 계획을 짜고, 얼굴을 익히고, 배낭에 도시락을 넣은 후에는 걷고, 관찰하고, 감상하고, 마음을 나누고, 즐기며 행복한 조원 7명이 8. 9구간인 구름정원길과 마실길을 걸었다.

구름정원길은 서울의 서북부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월드컵경기장까지 보이는 스카이데크에서 식물의 천이 과정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감탄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족두리봉이 멋있게 보이는 곳에서는 갈참, 굴참, 졸참, 떡갈, 신갈, 상수리, 신참나무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참나무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6형제나 있다는데 새삼 놀라고…, 불광중학교 뒷산의 북한산 깃대종 오색딱따구리와 청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들의 '딱! 딱! 딱!' 명쾌한 환영소리를 듣고…, 불광동 선림사 뒷길에서는 오늘의 미션인 외래종 일본목련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늘의 미션에 주어지는 수상을 예감해 보기도 하며…, 향로봉의 위용이 보이는 아름다운

기자촌 전망대에서는 죽은 아카시나무에 담쟁이 덩굴의 생태계와 함께 하는 자연이 신비로웠으며…, 마실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작한 오래된 진관사 태극기와 국가보물이 있는 삼천사를 들었을 때는 과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는 소중한 북한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랑스러움도 느꼈다.

북한산!

그냥 둘레길을 걷는 게 아니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경관을 감상하며, 스스로 체험케 하는 미션이 있는 5~6시간의 걷기가 지루하지 않았다. 가랑비 속에서의 도시락도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고, 각기 가져 온 간식을 내놓고, 서로가 편히 앉을 방석을 마련해 주는 팀워크는 진한 감동이었다. 더구나 저녁 식사 후의 지루함도 달래주는 친환경 장식 등의 제작, 공동작업을 극대화시킨 리포트 작성과 발표, 활동 중 우수팀에게 주어지는 각종 시상과 연수활동 중의 feedback 동영상까지 상상 이상이었다.

담당자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더욱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음에 고맙기만 했다. 항상 진지하고 밝은 얼굴과 미소, 참가자들 눈에 비치는 언행과 매너는 이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 작품을 전시하고 난 직후, 삽시간에 모든 포트폴리오 작품을 밖으로 옮긴 후, 작품 곁에서의 참가자 전원의 사진 촬영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더욱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아마도 담당자들의 북한산 사랑과 손발이 척척 맞는 평소의 호흡과 분위기 탓이 아니었을까?

행사를 마치며, 이런 행사는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다양한 조직이 참가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툴렀지만 우리가 만들었다는「둘레길생태지도」도 은근히 기다려진다.

'가고 싶은 둘레길, 머무르고 싶은 둘레길,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감동이 있는 둘레길'이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1,000만이 찾는 북한산! 점점 탐방객이 늘어나는 북한산!

이러한 탐방객의 증가는 더 많은 국립공원의 훼손으로 직결됨을 예고하는지도 모른다. 모든 탐방로의 드러난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탐방객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북한산이 아름답다고만 하지 말고, 이 북한산을 어떻게 보존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후손에게 잠시 이 땅을 빌렸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의 안락한 삶을 위해 다음 세대의 삶을 빼앗지 않도록 멀리 바라 보는 안목으로 북한산을 소중히 아끼고 가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도 열심히 북한산을 오르내린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창문너머로 북한산을 바라보았다.어느새 제2의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한 일터로 다가온 북한산이 나를 보고 방긋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오늘도 열심히 산에 오르고, 아름다운 북한산을 보존하라고…'



다.섯.번.째. 이.야.기.

생태관광 체험수기

김태한

장려상

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주니어 레인저 소속이다. 우리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여름 캠프(생태관광 체험)를 하였다. 생태관광 체험은 3일간 하는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부푼 마음을 이끌고 버스를 탔다. 일단 모두 연수원에 집합 한 후, 발대식을 하고 이동을 하였다. 긴 시간을 버스를 탔다. 도착한 후, 우리는 섬진강으로 래프팅을 하러 갔다. 래프팅을 하면서 아름다운 섬진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레프팅이 별 거 아닌 줄 알고 운동화를 그냥 신고 했는데 다 젖어서 당황했다. 다음, 요리재료를 사러 구례읍 전통시장에 갔다. 저녁에 있는 요리 마니또를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조는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고, 떡볶이 재료들을 사서 숙소로 갔다. 그 후, 숙소에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 요리는 서로를 친하게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날, 나는 조원들과 함께 밥을 먹은 후, 미션을 했다. '국립공원

포토포임' 이란 것으로, 사진으로 자연보호에 관한 사진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조인 4조는 어차피 산이라 배경이 다 자연이니, 그 산을 배경으로 쓴 후, 몸으로 글자 '.eco'를 만들었다.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보이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선 배경이 목표였고, 우리들은 그냥 박수를 치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으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리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보였지만, 중턱쯤 가니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때 부터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다. 한 5킬로 쯤 간 후,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왔다. 정상에 올라오니, 앞에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추웠다. 중간쯤에선 너무 더워서 문제였는데, 정상에 도착해 보니 얼어 죽을 것 같았다. 한번 산에 올라간 후,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종복원 기술원(곰 체험관)에 가서 곰에 대해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올가미를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다. 곰들은 올가미에 걸리면 나오질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올가미를 만드는 법이 그렇게 쉬운 줄 몰랐다. 그냥 줄 2개를 묶어놓기만 했는데 곰이 걸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한 가지 더, 곰 앞에서 죽은 척을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곰은 죽은 시체를 확인하려고 툭 친다는데, 곰의 무게가 1톤이다. 1톤의 무게를 맞고 가만히 있을 법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우리는 베어 샵에서 장신구들을 산 다음, 다시 숙소로 가서 다음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셋째날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 역사에 대해 배웠다(오늘 찾아보니 지리산 계곡이야기 라고 되어있다). 지리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주니어 레인저 때문에 북한산은 많이 가보았지만 이번 지리산 여행은 좀 달랐다. 생태관광을 통해 지리산에서 래프팅을 하고 등산도 하고 반달곰 설명도 듣고 지리산에 얽힌 한국역사도 들으면서 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냥 나는 산은 식물이 광합성 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자연이라고 과학시간에 배운대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

서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고 래프팅을 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종복원 기술원에서 반달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지리산에 관한 한국사도 들어서 더 좋았다.

그리고, 순천 낙안 읍성에도 갔다. 내 느낌은 민속촌 비슷했다. 환경에 관한 사진을 조별로 찍었다. 그렇게 순천 낙안 읍성을 둘러본 후, 우린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을 떠나서 학교 친구들이 아닌 형, 누나 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쑥스러워서 적응도 잘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글을 써보니 기억에 남은 것도 많았고 처음해 보는 것도 많아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년에 또 가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여섯번째 이야기

주니어레인저 2박3일 여름 탐사

김하준

장려상

이번에 지리산으로 갔던 주니어 레인저 8월 여름 탐사의 주제는 '생태관광'이었다. '생태관광'은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관광의 한 형태이다. 즉 생태관관은 단순히 보고 즐기던 관광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인 것이다. 처음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에는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인 줄 알았지만, 직접 배우고 실천해 보니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이 아닌, 지역 경제도 생각하는 관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여름탐사에서 했던 활동은 섬진강 래프팅, 등산, 종복원기술원 방문 등이 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섬진강 래프팅이었다. 말 그대로 섬진강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물이 적어서 급류가 많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또한 중간에 노를 젓지 않고 모터보트를 사용하여 이



동한 곳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의 주제였던 '생태관광'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비록 꽤 재미있는 래프팅 활동이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둘째날 오전에는 지리산 성삼재에서 출발하여 노고단까지 등산을 했는데, 노고단은 내가 3년 전에도 와봤던 곳이라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 때문에 땀이 많이 나서 더 힘들었고, 심지어 돌이 비에 젖으니 꽤 미끄러워졌다. 설상가상으로 노고단 대피소를 지난 뒤부터는 차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전혀 8월 같지 않은 날씨였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고단에 올랐다는 성취감이 들었다. 특히 올라가면서 보였던 지리산의 장엄한 풍경은 이번 노고단 등산의 백미였다. 자연을 느끼고, 쓰레기 배출도 없었던 노고단 등산이 이번 여행에서 생태관광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노고단 등산을 한 날 오후에는 종복원기술원을 방문했다. 이곳 역시 3년 전에 와봤던 곳이었다. 그때와 같이 반달가슴곰을 볼 기대를 했으나, 공교롭게도 하필 그날 반달가슴곰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서 곰은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을 봤다. 비록 곰은 볼 수 없었지만 실내에서 관련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다. 주로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1983년 5월 멸종된 줄 알았던 반달가슴곰이 다시 발견되면서 2004년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는 36마리가 있고, 목표 개체수는 50마리라 한다. 나는 개체수를 14마리 늘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지만 20여년 동안 증가한 개체수가 40마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반달가슴곰이 멸종 위기종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생태관광의 정의대로 쓰레기도 적게 배출하게 된 것 같다. 여행 전에도 선생님께서 생태관광 관련 책자를 나눠 주셔서 생태관광에 대해 더 잘 알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단체인 만큼 '생태탐방'이라는 주제의 이번 여름탐사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일곱.번.째. 이.야.기.

주왕산국립공원 생태 나누리 캠프

나미영

장려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체험하기에 적합한 “정몽구재단과 함께하는 생태 나누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주왕산국립공원 직원분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아동들과 상의 후 체험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다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주왕산의 유래와 산세를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주왕산에 도착한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인 8월 19일은 무더운 여름날이 지속되던 날 중의 하루였지만 구름이 하늘을 가려 주어서 더위로 인한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행운도 함께 따라주었다. 우리들이 타고 온 차 앞에서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분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어색한 만남을 뒤로 하고 탐방안내소에서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탐방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지 및 일정, 주의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주왕산의 유래 및 생태와 자연환경, 서식하



는 동물의 종류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해설과 홍보영상물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었다.

상의야영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일정 중 첫 번째 체험인 “향기 솔솔 석고방향제 만들기” 시간에는 모둠별로 앉아 각자의 종이컵에 석고가루와 물, 천연 에센셜 오일, 천연유화제 등의 재료를 넣고 잘 썩은 후 여러 가지 모양 틀에 넣어 굳히는 나만의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보았다. 차 안이나 화장실 등에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석고 방향제를 처음 만들어 본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완성품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기대작인 석고 방향제를 굳히는 동안 두 번째 체험인 3D입체 공룡액자 만들기 시간에는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룡모양의 틀에 찍어서 입체 모양의 공룡액자를 완성하는 체험이었다.

각자 완성된 입체액자를 비교하면서 서로 자신의 공룡이 멋질 수밖에 없



는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갔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체험에 참여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되면서 너도 나도 배고프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런 우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준비해 주신 식당으로 이동하여 깔끔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으로 모두들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바빴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반찬투정을 하던 모습들은 온데간데없이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반찬 리필 주문이 이어져 식당 직원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우리들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꿀맛 같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일정을 시작하였다. 주왕산의 기암괴석에 얽힌 역사와 전설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산에 올랐다. 높이 721m에 돌로 병풍을 친 것 같다 하여 석병산이라고도 하며, 신라의 왕족 김주원이 머물렀다 하여 주방산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주왕산이라는 이름은 나옹화상(혜근스님)이 수도를 하며 주왕산이라 부르면 이곳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해설사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산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 웅장한 모습의 대전사를 지나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솔부엉이 모형 앞에서 한 숨을 돌리며 사진도 촬영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호기심이 많은 아동들의 짓궂은 질문에도 우문현답으로 대답해 주시는 해설사의 진지한 모습과 지금은 얼마만큼의 솔부엉이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뒤로 하고 산행을 이어갔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맑고 깨끗한 계곡의 운치 있는 아치형 다리를 지나 완만한 등산길을 걸어서 계곡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들바위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남아선호사상이 심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 힘들어하던 옛

날 사람들이 바위를 등지고 가랑이 사이로 돌을 던져 아들바위 위에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너도 나도 돌 던지기에 바쁜 아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기만 한 2세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순진함을 엿볼 수 있었다. 구름이 낀 흐린 하늘을 등지고 조금 더 걸어가니 바위로 덮인 등산로 앞에서 해설사의 발길이 멈추었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 유문암 등이 다량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이나 호수 혹은 지하수가 포함된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페퍼라이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주왕산은 아주 먼 옛날 바다나 강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산이 바다나 강이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동들은 질문공세를 퍼부었고, 침착하게 질문에 응대하는 해설사의 진지한 모습은 또 한 번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초록의 산길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모습이 시끄러울 만도 할 텐데 잠시 멈추어 길을 내어주며, 웃음 짓는 얼굴로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등산객들의 산 사람다운 여유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빼곡히 둘러싸인 나무들 사이에서 태양을 둘러싼 나무들의 경쟁관계에 대해 알려 주셨다. 뿌리를 땅에 묻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생물인데 무슨 경쟁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나무의 생존경쟁은 동물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성장과정이 늦어지면 더 커진 잎의 나무들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해 곤경에 빠지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에 아동들은 또 한 번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직접 나무와 태양이 되어 태양이 회전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좀 더 자라기 위해 애쓰는 나무들의 역할극을 진행하여 식물의 생존경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라나는 나무들의 일상을 몸소 체험하며 자연의 신비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다음 코스로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제1폭포인 용추폭포, 절구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제2폭포인 절구폭포, 2단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제3폭포인 용연폭포를 뒤로 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자 산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산을 결정하였다. 오랜만에 산에서 보낸 여유로움으로 인해 한결 넉넉해진 마음을 안고 다음 체험 장소인 로컬 푸드로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넓고 큰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에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수타 피자와 스파게티를 만든다는 생각에 모두들 들뜬 기분으로 시끌벅적하였다. 요리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전용용기에 소분되어 개인별로 지급되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나만의 화덕피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마치 요리 전문가가 다 된 듯한 진지한 표정에는 모두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다. 친환경 잡곡을 이용하여 만든 천연 수타 피자가 화덕에서 익는 동안 조리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2층으로 자리를 옮겨 모둠별로 크림스파게티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뜨거운 불을 사

용해야 하기에 주의사항을 자세히 전달받고 손을 씻은 후 역할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전문 요리강사 선생님과 함께 스파게티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먼저 뜨겁게 달구어진 팬에 오일을 두른 후 마늘, 베이컨, 야채 등을 넣고 볶아 준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우유, 생크림을 함께 넣고 중불로 끓여 준 후 면을 넣고 잘 섞어서 파슬리를 뿌린 후 다 같이 시식해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아동들과 직접 만들어 본 크림스파게티는 그 어떤 유명한 파스타 집에서 먹어본 스파게티보다 맛있었다. 맛도 맛이지만 난 생처음 스파게티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그 맛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스파게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화덕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익은 화덕피자는 로컬 푸드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개별 포장되어 각자에게 지급되었다. 내가 직접 만든 피자를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행여나 다른 친구들의 피자와 바뀌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포장지의 이름을 확인하며 남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생태 나누리 체험으로 소중한 경험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름날의 하루를 장식할 수 있었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차에 올랐다. 주왕산국립공원 직원 분들의 인사와 마중을 받으며, 언제든지 주왕산을 다시 찾게 되면 당신들을 찾아오라 하시며 그때는 주왕산을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과 무료입장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아동들은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였고,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을 푸른 산이 있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보낼 수 있었던 행운이 우리 꿈나무지역아동터 아동들의 기억에는 또 한 장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생태 나누리 체험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 우리들도 바쁜 일정상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을 접하며 또 다시 아이들을 웃으며 반기고 보살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다시 한 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빌려 쓰고 가는 소중한 자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애쓰시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분들의 노고와 생태관광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덟번째 이야기

쪽빛바다 청정한려해상에서 갯바람을 맞다!

류정혜

장려상

만선의 배가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귀항하는 항구는 기쁨보다는 무사히 귀항해서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어부는 풍어를 기원하고 농부는 풍년을 기원하듯 풍성한 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주말엔 자녀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생태관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 9월 12일 광주가정위탁센터에서 오신 가족분 들과 해설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 두모마을을 연계한 "바다가 숨 쉬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자연환경해설사로서 운영하였다.

파아란 하늘과 푸른바다가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오는 상쾌한 아침 이순신 장군의 순국지인 남해의 관문을 지나 노량 앞바다가 펼쳐진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일정 소개 후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노량해전 영상으로 이순신을 만나고 투어가 시작되었다.

위탁가정이란 일정기간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 보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자주 나갈 기회가 없었던터라 오랜만에 멀리 남해까지 나들이를 나와 너무 즐겁다고 하시며 참여자들의 표정이 너무도 해맑았다.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버스에 오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우리는 남해 두모체험마을로 향하였다. 두모를 가는 중간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멸치쌈밥을 주문해 두었다. 물론 드셔본 분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참여자들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며 잔뜩 기대를 하셨다.

모든 참여자들의 미소가 너무 밝으시고 이야기도 집중해서 경청을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다. 구불구불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멸치쌈밥집에 다다라 해안길도 걸어보고 스마트폰에 추억도 남겨보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 식당으로 들어섰다.

배가 많이 고파서인지 잘 차려진 밥상에 다들 "우와!~~" 탄성이 나왔다.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밥은 얼마든지 더 드세요!" 상추에 멸치조림과 밥을 올려 한입가득 담는다. 입에 맞으시는지 맛있다면서 즐겁게 식사를 끝마쳤다. 이렇게 우리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우리는 남해두모마을 카약체험을 떠났다.

십여분을 달려 도착한 남해두모마을은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가족과 이웃간의 정이 아직도 너무 따뜻한 마을이다. 순박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친절한 마을사무장님은 웃음 한가득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2008년 환경부장관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두모마을



은 누구나 찾고 싶은 시골 고향 같은 그런 넉넉하고 푸근한 마을로도 유명하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바다향 가득 함박웃음도 가득한 체험을 하려고 한다.

광주에서 도시의 냄새만 맡다가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맡는 짭쪼름한 갯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얼굴을 스치는 갯바람은 따뜻한 시골냄새처럼 향긋하다. 쪽빛의 고운빛깔 남쪽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 두발을 담그고 싶어지는 충동을 부른다. 우선 참여자들을 인솔해 카약체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안전담당 및 카약강사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기본교육을 들어본다. 아이도 어른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배우려는 집중력이 대단하다. 모두들 신이나 열심히 배워본다. 십여 분의 안전교육과 기본패들사용법을 배운 후 2명씩 짝을 이뤄 2인용 카약에 몸을 싣고 조심스럽고 걱정스런 맘으로 물에 띄워 보낸다. 모두들 긴장된 모습도 있지만 기대감이 더 큰 듯 처음엔 약간 멈칫하지만 이내 즐겁게 패들을 저어본다. 앞으로도 나아가고 때론



뒤로도 밀려가고 따가운 햇살도 이 순간을 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시간은 흐르는 물결처럼 출렁출렁 몇 번 출렁이더니 벌써 2시간여의 시간이 흘렀다. 휘슬을 힘껏 불어본다. “삐익삐익”

“이제 나올 시간입니다! 모두들 천천히 돌아오세요! ”

아쉬움이 남지만 다들 만족스러운지 흐뭇하게 돌아온다. 지켜만 보던 나도 어딘가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즐거워진다. 오늘 참여자들의 불편한 몸이 잠시나마 보통사람들처럼 행복해졌으리라 생각하니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표정만 봐도 즐거웠음을 느낄 수 있어 생태관광의 올바른 체험을 다 함께 무사히 끝마치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생태관광은 과연 어떤 관광인걸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흔히들 관광은 놀고 먹고 즐기고 싶어 떠났었다면 우리가 꿈꾸고 지켜내고 싶은 생태관광은 지역주민들과 국립공원과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소중하고 귀한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지역민도 만족하고 참여자도 만족해 운영자들은 그냥 덤으로 기쁨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생태관광프로그램은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바다체험 생태관광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이 최고라고 자부한다. 남해의 짭쪼름한 바다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멸치쌈밥의 꿀맛과 처음으로 혼자 해보는 카약체험의 신비롭고 행복한 체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홉.번.째. 이.야.기.

나의 꿈! 노고단 2025

박서진

장려상

초록빛 시작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모두가 단체 복으로 갈아입은 후 연수원장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똑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모습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연수원장님의 말씀과 생태관광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다들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버스에 오르며 2박 3일간의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시작되었다.

섬진강따라…

이번 생태관광의 주제는 '지리산 위, 아래 생태관광이야기'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환경을 관찰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생태관광이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관광을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환경을 보



그림1_노고단 복원 전

그림2_노고단 복원 후

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는 것도 모두 생태관광의 일환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활동 중 하나인 레프팅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약 4시간가량을 달려 섬진강에 도착하였다. 섬진강에 도착하여서 다 같이 준비운동을 하였고 기대하던 레프팅을 시작하였다. 조별로 보트에 올라 구령에 맞춰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다.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옆 보트와 물을 뿌리며 장난도 치고 중간에 잠시 모래사장에 멈추어 다이빙도 하며 섬진강에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었다.

성삼재에서 노고단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은 약 20여 년 전에는 탐방객들의 등반과 야영,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어 〈그림1〉처럼 삭막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일 탐방객을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덕분에 노고단은 자연훼손을 막고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을 영원히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름다운 노고단이 10년 후 100년 후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가장 기대되었던 날은 지리산 노고단 등반과 종 복원센터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둘째 날이었다. 둘째 날, 비록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날씨가 흐려서 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산봉우리마다 구름과 안개가 솜사탕처럼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다.

주니어레인저 모두가 노고단을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하였다.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모두들 우비를 챙기고 난 뒤에야 노고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 주니어레인저는 주변의 여러 나무들과 풀 등의 자연을 느끼고 사진도 찍으면서 올라갔다. 출발 직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출발 후 곧 멈추었고 산을 오르기에 적당한 신선한 공기를 남겨주었다. 그렇게 물러갔던 비는 노고단 대피소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아까 벗어두었던 우비를 다시 꺼내 입고 힘차게 등반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대피소 건물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을 취한 뒤 서로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다시 힘을 내서 노고단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비와 함께 세찬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였다. 한여름의 등산이었지만 꽤 굵어진 빗방울과 계속해서 부는 바람 때문에 젖은 옷과 머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그렇게 모두들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있으면 덜 추울 거야!"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서로서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여럿이 함께 안아주며 바람을 막고 체온을 나눔으로써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극의 펭귄들은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에서 견디기 위해 '허들링'이라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허들링'은 여러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를 둘러싸 체온을 유지하는 행동이다. 남극의 펭귄들과 같이 우리 또한 서로서로 모여 '허들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까지 오르느라 다들 지치고 힘들었던 상태였지만 서로에게 많이 춥지는 않으냐고 걱정해주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일이던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서로 돕고 격려해주며 등반을 하며 우리는 마침내 노고단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과 우비가 계속 휘날렸지만 얼굴만큼은 모두 밝게 웃는 얼굴로 사진촬영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비가 온 탓에 내려가는 길은 훨씬 더 미끄럽고 온 몸이 다 젖어버려 춥기까지 했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 반달가슴곰…

노고단에서 내려온 후 성삼재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바로 종 복원기술원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반달가슴곰일 것이다. 우리 또한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종 복원기술원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본 곳은 생태 전시관이었다. 그 곳에서 설명과 함께 배설물이나 발자국 같은 야생동물들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지리산에서 반달곰과 다른 야생동물들을 위협했던 올무 등이 전시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위협당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어떻게 반달가슴곰 종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영상을 보았다. 영상 시청 후에는 원래 생태학습장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날은 아쉽게도 반달가슴곰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어서 실제로 반달가슴곰을 볼 수는 없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종 복원 목표는 최소 개체 수 50마리 달성이라고 한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여정, 순천 낙안읍성

생태관광 셋째 날 아침 이번 여정의 마지막 일정인 순천 낙안읍성으로 출발하였다. 낙안읍성에서 해설사 분의 흥미롭고 유익한 설명을 들으며 함

께 낙안 읍성을 둘러본 후 우리끼리 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낙안 읍성은 안동민속마을과 비슷한 듯 다른 분위기의 민속마을이었다. 대부분의 민속마을에는 주로 기와집이 있어 양반계층의 삶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낙안읍성은 대부분이 초가집으로 평민들의 삶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길을 올라가보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정말 포근하면서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조원들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그네와 굴렁쇠 등의 민속놀이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낙안읍성 입구에서 주니어레인저 모두가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함으로써 2박 3일간의 짧고도 길었던 생태관광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다.

그 후

고3을 앞둔 시점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많은 고민들로 지쳐있던 나에게 이번 생태관광은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진정한 휴식이 되었다. 평소에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며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환경과 관련된 진로에 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캠프를 가기 전에는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환경을 둘러보는 여행이라고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번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생태관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20여 년 전의 노고단의 모습과 2015년 현재의 노고단을 보며 자연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10년 후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노고단 2025”를 기대하며 나 또한 많이 성장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2025년 노고단에 다시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번째 이야기

주왕산의 소리와 향기를 찾은 시간

박은희

장려상

햇살 좋은 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현장학습을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 어디론가 밖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그날은 더 들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단어 '주왕산', 우리가 가는 곳이랍니다. 덧붙여 말씀해 주신 것은 생태 나누리 라는 것이었는데, 주왕산에서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찾아가는 여유로운 여행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왕산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하나씩 먹고 나니 무거워진 배였지만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멋있는 모자를 쓰고 나오신 생태나누리 선생님께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게 멀리 가리키셨는데 그 손끝에는 웅장하게 솟아 있는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나 했더니 평소 올라간 학교 뒷산이나 차를 타고 보던 평범한 초록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암바위라고 하는 암석과 그 주위에 있던 소나무들은 햇살에 아픈 눈이지만 한

참을 보고 있게 하였습니다. 밑에서 올려다 본 산의 모습도 멋있었는데 만약에 그 꼭대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소나무 가득한 풍경이 아찔하게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암 바위를 몰랐던 저에게 화산폭발 실험을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선생님이 저는 정말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따라 산길을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가슴을 쭉! 펴고 숨을 훅! 들어 마셔 보았습니다. 이 맑은 공기를 담아 갈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오빠 한 모금, 이모야 두 모금, 사촌 동생 세 모금, 아빠 네 모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생태나누리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소나무 잎을 주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나무들이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차장에서 봤던 기암 바위 주변의 소나무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간 날은 봄에 피는 꽃이 흐드러지거나 가을 단풍으로 노랗고 빨갛게 화려한 주왕산은 아니었는데도 등산객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푸르고 또 푸른 소나무들 때문은 아닐까요? 주왕산은 한겨울에 와도 한여름의 산처럼 초록빛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서 한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반짝이는 전구와 흰 눈으로 덮인 소나무를 상상하니 혼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또 한 가지는 멋진 나무 기둥 위에 큰 새였는데 부엉이 같기도 한 그 조형물은 주왕산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야생동물인 솔부엉이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솔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이고 보호해야 할 동물



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괜히 더 보물섬처럼 특별해지는 주왕산이었습니다.

어제 비만 오지 않았으면 짚신을 신고 이 길을 걸었을 텐데 아쉬운 맘도 들었지만, 풍경에 취해 햇살에 취해 걸어 올라가 보니 흙냄새 풀냄새가 코를 간질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평소 걷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반 친구는 주저앉아 담임선생님의 힘을 빼고, 친구들도 계속 보이는 비슷한 풍경에 흥미를 잃어갈 때 쯤 생태나누리 선생님이 무언가를 건네 주셨습니다. 두 눈을 반짝이게 한 관찰 돋보기! 이 돋보기로 나무의 표면 그리고 곤충, 꽃을 관찰하니 평소 눈으로 보던 것 보다 더 적나라한 무늬,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촌동생이 봤다면 놀라서 돋보기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소나무에 붙어서 얼굴과 눈을 들이대면서 소나무 표면을 관찰하는데 그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산행 내내 생태나누리 선생님께서 친절히 가르쳐주신 나무, 풀의 이름은



다 기억 하지 못했지만, 그 설명 덕분에 무심코 지날 수 있었던 풀, 같게만 보였던 나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아까 마신 맑은 공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토피어리라는 이끼를 이용하여 다육식물 화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저는 토피어리 생김새가 맘에 들지 않아 손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친구 중에는 젖어 있는 토피어리를 망설임 없이 뭉치고 주무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화분을 보니 귀엽고 예뻐서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토피어리를 둥글게 말았습니다. 둥근 토피어리 뭉치에 뾰족뾰족한 다육이를 넣어보니 영락없는 파인애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눈과 리본을 붙여서 나름 귀여운 토피어리 화분을 보니 뿌듯한 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눈팔 시간 없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생태관광을 마쳤습

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로 설명해주신 폭포도 구경하지 못했고 단풍이든 주왕산의 화려한 모습도 볼 수 없었지만, 주왕산에서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찾아가는 여유로운 여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맑은 자연의 향기와 물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덤으로 텔레비전 속에서 떠드는 '힐링'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주왕산! 또 주왕산 같은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맑고 청량한 산을 보호해야겠다 다짐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한번째 이야기.

제인구달이 된 코풀고 선생님

최성우

장려상

9월 24일, 원래대로라면 휴무인 날이다. 그러나 해설 진행을 맡은 한 동료의 사정으로 인해 그를 대신해서 해설을 진행해야 했다. 동료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해설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 다행히도 해설 장소가 집에서 가까웠고, 해설 대상자인 S초등학교 아이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

1시간 전 해설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 답사를 했다. 해설 리허설을 해보면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했다. 해설을 진행할 장소를 꼼꼼히 둘러보다가 쉼터에서 통나무 벤치 세 개를 보았고, 그 벤치 아래에서 지렁이를 발견했다. 북한산에 살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야생 멧돼지의 먹이인 지렁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주변에 떨어진 나무껍질로 발견한 지렁이를 살짝 덮어 두었다. 현장 답사를 하는 도중에 함께 해설을 진행할 동료의 연락이 왔다. 그 동료와는 S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곧 가겠다고 했다.

S초등학교에 가까워지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S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교육출장으로 인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어졌다. 그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해설은 무척이나 인상에 남았다. 그 날 아이들에게 세계의 국립공원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을 소개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해설의 막바지에 존 뮤어와 제인 구달 두 인물을 소개했는데, 아이들은 존 뮤어는 잘 몰라도 침팬지로 인해 친숙한 제인 구달은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제인 구달에게 흥미를 보이자 해설이 한결 수월해졌다. 아이들은 나와 동료들을 제인 구달과 동일시하는 듯했다. 제인 구달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이들과 급속도로 친해졌고, 제인 구달에게 빚진 마음과 함께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함께 해설을 진행할 동료를 만나서 간단히 리허설을 마쳤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여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본 아이들의 얼굴에 반가운 빛이 떠올랐다. 나 또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 짓게 되었다.

"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니 지난달 교육출장으로 생긴 공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아이들은 그런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매일 보는 사람처럼 나를 반겼다. 나도 금방 그런 아이들에게 적응되었고 아이들의 장난에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들이 나를 볼 때 항상 하는 장난이 있다. 내 애칭이 풀 선생님이어서 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내가 풀 선생님이니 풀을 먹고 산다는 둥, 풀숲에 산다는 둥, 풀을 꺾으면 내가 아프다는 둥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으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트레킹을 하기 전 준비체조를 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실내화 차림이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나와 동료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나왔을까 하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웃으면서 얼른 교실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오라고 말했다. 해설에 참가하신 담임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갔다 오겠다고 하셨다.

이번 해설 주제는 북한산의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우고자, 야생동물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똥이나 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하며 걷다보면 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내 의도대로 아이들은 모두가 탐정이 된 듯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저마다 '늑대를 찾을 거다', '여우를 찾을 거다' 하며 자기가 찾고 싶은 동물들을 경쟁하듯이 말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부터 지름길을 통해 곧바로 통나무 벤치가 있는 쉼터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의를 빼앗기다보니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중간에 멈칫했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의 분위기가 흩트려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둘레길 초입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오르막길을 따라 걸어갔다. 한참을 쉬지 않고 오르니 아이들은 힘들어했다. 그때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이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쉼터에 오지 않자, 우리를 찾아 내려오는 중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이미 지름길로 올라와서 한참 동안 우리를 기다린 듯했다.

"왜 지름길로 올라오시지 않고요……?"

"아, 네. 아이들 체력을 길러주려고 좀 걸었습니다."

멋쩍어진 나는 담임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태연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주의를 돌리고자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며 쉬라고 했다. 아이들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니 멋쩍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보태졌다.

아이들과 함께 쉼터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자리에 앉게 한 후, 핍박받는 북한산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북한산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주로 야생 멧돼지이다. 야생 멧돼지는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등산객에게도 위협을 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다.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인간의 입장에서만 야생동물을 바라보지 말고, 야생동물의 입장도 이해하여 넓게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 마당을 마련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마을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가 나쁜 동물인지 착한 동물인지 거수해보라고 했다. 의외로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한 친구가 많았다. 먼저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한 사람 중 두 명에게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했다. 자기 할아버지 텃밭에 야생 멧돼지가 자주 내려와서 감자를 캐먹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또 야생 멧돼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한 사람 중 두 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야생 멧돼지가 살고 있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 사이에 출입을 막는 철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는 자연스럽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람들이 야생 멧돼지가 먹는 도토리 열매나 식물 뿌리를 캐가서 야생 멧돼지의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다. 아이들이 말한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었다.

의견을 정리한 후, 아이들에게 현재 야생 멧돼지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북한산에는 샛길이 300개가 넘는데, 사람들은 이런 샛길을 통해 야생 멧돼지가 생활하는 곳을 지나간다. 또 이곳으로 들어와서 야생 멧돼지가 먹을 나무열매와 나무뿌리를 가져간다. 샛길을 통해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야생 멧돼지는 위협감을 느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긴다. 그 상황에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산국립공원에 사는 야생동물은 충분히 생활할 곳이 필요한데, 산자락에는 바로 민가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야생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하다. 그래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야생 멧돼지의 생활모습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동료 분이 촬영한 야생 멧돼지 영상을 보여주었다. 야생 멧돼지가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은 큰 반응을 보였다.

"우와! 야생 멧돼지다!"

그리고 나무껍질로 감춰둔 지렁이를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지렁이가 야생 멧돼지의 먹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다른 한편 살아 움직이는 지렁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여기 지렁이가 있어! 정말 있어!"

담임선생님의 권유와 아이들의 눈빛에 끌려 S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곳에서 먹는 첫 번째 점심식사이다. 매번 해설이 끝난 뒤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실로 바로 복귀해야 해서 점심식사 초대를 거절했다. 그런데 오늘은 다함께 밥을 먹어야한다는 분위기여서 거절할 수 없었다. 배식 전부터 아이들은 내게 같이 앉아서 먹자며 초롱초롱한 시선을 보내었다. 담임선생님도 그런 눈치여서 나와 동료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밥 먹는 것보다도 질문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주로 야생 멧돼지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야생 멧돼지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야생 멧돼지의 힘은 얼마나 센지, 아프리카 야생 멧돼지와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오전에 트레킹을 하면서 땀을 내고 힘도 뺐어도 아이들은 순간의 배고픔보다도 야생동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직접 답을 주기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했다.

순간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난 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와 동료는 각자 애칭이 있는데, 그것은 꽃, 풀, 곰 선생님이다.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는 애칭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S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의논했고, 모 아이돌 그룹처럼 "우리는 꽃,풀,곰이에요!" 하고 말하기로 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꽃,풀,곰이에요!"

갑자기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당황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꾸어야했다. 그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친구들 코풀고 알죠? 흥흥 이렇게. 꽃풀곰 선생님을 빨리 말하면 코풀고 선생님이 되요."

그 순간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열두번째 이야기.

국립공원에서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최종미

장려상

우이령 길을 다녀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북한산국립공원 언저리에 살기 시작한 지 십여 년이 지났다. 처음 10년은 부엌의 작은 창으로 인수봉이 늘 보였었고, 지금은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멀리 북한산 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그 안에 우이령이 있다. 북한산에 있는 21개 둘레길 중 내가 가장 많이 가본 길이기도 하다. 산에 오르기 부담스러운 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길이다. 가끔은 지인들과 동행을 하기도 했지만 혼자 더 많이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사님과 어린 남매가 있는 한 가족과 한 분의 기자님과 함께 그것도 꽤 긴 시간 이 길에 푹 빠졌다 나왔다. 경기도 양주와 서울 우이동을 이어주는 이 길은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도 생겼다. 지금은 산에 간다면 등산화부터 챙기는데 옛날에는 짚신 신고 걸었겠지…. 우이령길은 꼭 등산화가 필요한 길은 아니니 맨발걷기 체험처럼 짚신 신고 걷기 고무신 신고 걷기, 등산화 신고 걷기를 다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 느낌이 색다르지 않을까… 주막은 없지만 다래 덩굴이 보이면 늘어진 줄기를 한 번 흔들어 옆에 있는 때죽나무 꽃비도 맞고, 뽕나무 그늘에 앉아선 허기진 배를 위해 입술이 까매질 정도로 오디를 따먹고, 비탈진 길을 걷다가 하늘이 뚫린 곳에선 멀리 보이는 오봉의 다섯 봉오리를 세며 지금 여기 내가 밟고 있는 흙이 저 바위로부터 왔겠구나 하는 아득함도 느껴보고, 걸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가오는 풍경은 제 각각이겠지만 저수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물수제비뜨기도 해본다. 쉼터에 앉아선 건너편 나무에 찾아드는 새소리를 따라 이렇게 우는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쌍안경으로 찾아보고, 바닥의 질경이 작은 꽃을 루페로 보고 감탄도 좀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리막이다.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나온다. 데크에서 계곡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좋겠다. 계곡에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누워서 하늘 보며 저 아래 바위 사이를 흐르는 희미한 물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넓게 다져진 길이 나온다. 해와 구름의 숨바꼭질이 시작이다. 거기에 나무도 합세를 하고 나도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빛이 느껴지면 걷고 그늘이 느껴지면 반대로 선다. 이 놀이의 이름은 에어컨 놀이라고 하자. 약간 쌀쌀한 초봄에 하면 히터 놀이쯤 되지 않을까.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곧게 뻗은 소나무 길이다. 여기서는 폐 속 깊이 나무 남새를 맡으며 그야말로 숨쉬기 운동을 하자. 한가득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딱 다섯 번 만, 그리고 바닥에 소복이 쌓인 소나무 잎을 밟으며 발바닥의 피곤이 풀릴 때면 어느새 양주 교현리 입구다. 늘 이렇게 오고 갔을

옛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이 길이 현재의 우리들을 과거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어주는 길이란 느낌이 온다. 이번 걷기는 아이들의 꾸미지 않은 자연과 만나는 방법을 보면서 아이들을 최대한 자연에 많이 노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 이름 풀이름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숲에 머무는 시간만큼 자연을 닮지 않을까 그러면 저절로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것 같다.

다른 둘레 길과 달리 양쪽 입구에 센터가 있으니 출발 지점에서 그곳을 지나는 탐방객들 – 아이나 어른 – 에게 그때그때 적합한 미션을 제시해 걷는 동안 좀 더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시작점에서는 미션이 적힌 쪽지 함을 만들어 하나 뽑아들고 걸으며 그 미션을 수행하고 마치는 곳에선 확인을 하고, 미션의 내용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좀 더 사람들을 자연 속으로 깊게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미션1, 달팽이처럼 걸어보시오. 미션2, 몇 가지 색깔의 꽃을 보았나요? 미션3, 유격교라고 쓰인 다리에 멈추어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미션4, 오봉의 5번째 봉우리 근처에 구름이 있었나요? 미션5, 흰색 꽃을 보았다면 몇 종류의 꽃을 보았는지.. 미션6. 로드킬 당한 곤충을 혹시 보았나요? 등등… 벌써부터 재미있는 우이령 길이 될 것 같다. 나만의 생각일까?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행사 시작 즈음하여 부슬부슬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보다 자외선 걱정도 없고 시원하다고 애써 위로하며 출발지로 이동했다.

박사님, 저, 그리고 20대 청년 둘, 퇴직하시고 숲 해설 공부를 시작하신



분, 자연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교원직무연수(생태탐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과 그 따님 이렇게 일곱 명으로 구성된 우리는 장미공원에서 호기롭게 파이팅을 외치고 출발하였다. 우리가 조사할 구간은 북한산 둘레길 6구간 평창마을길과 7구간 옛성길이었다. 사실 이 두 구간은 국립공원의 경계 밖에 있는 길이다. 평창마을길은 드라마에서 보던 고급 주택가를 지나는 구간이고, 옛성길은 북한산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오전에는 전망이 탁 트인 7구간에서 시작하여 6구간으로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오전은 심술궂은 날씨로 인해 옛성길의 핵심인 '한발 물러서서 북한산의 봉우리 즐기기'가 좀 퇴색되었다. 구름 속에서 잠깐 잠깐 고개를 내미는 북한산 주능선의 봉우리들을 보면서 족두리봉, 사모바위 등의 전설과 비봉의 보물에 대해 이야기 하며 걸었다. 또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받은 한북정맥의 좋은 기운이 모인다는 보현봉을 바라보며 그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살짝 기대해 보았다.

오후 평창마을에 접어드니 하늘이 개고 살짝살짝 해가 비쳐서 살갗이 따갑기도 했다. 주변에 높은 담을 두른 멋진 집들을 지나며 한 참가자가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저변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가의 복잡한 재산싸움, 암투 장면과 약간의 부러움이 깔려있지 않았나 싶다. 행복의 기준은 너무나 개인적이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높은 담장과 집 지키는 개 짖는 소리만 가득한 평창마을길은 볼거리가 없다고 애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는 개성 있는 건물, 담장을 타고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담쟁이덩굴, 문 앞에 내어놓은 예쁜 화분 등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길이었다.

언덕 위에서 발견한 연리목, 얼마나 많은 부대낌과 상처와 치유를 거쳐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걸까? 서로를 내어주고 마침내 한 몸이 된 연리목, 부부의 연을 맺은 둘도 저만큼의 부대낌을 견뎌야 세상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나무였다.

더위도 피할 겸, 멋진 카페가 많다는 평창마을길에 와서 그냥 가면 섭섭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나왔다. 지도에 그려진 둘레길을 살짝 벗어나서 골목으로 접어드니 그냥 가정집 같은 미술관이 나왔다. 마침 보테니컬아트 공모전에서 입상 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요즘 보테니컬아트에 빠져있던 난 생각지 못한 눈 호강을 했다. 그 미술관 이외에도 여기저기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들이 모여 있었다. 등산복이 약간 신경 쓰였지만

뜻하지 않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서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었다.

평창동 미술관길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화랑이 줄줄이 들어선 데 이어 유명작가들도 속속 입주하여 현재 평창동의 미술거리를 형성되었다고 한다.

미술관으로는 92년 토탈미술관이 개관한 데 이어 이응노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도자기 전문의 셀라뮤즈박물관과 김흥수미술관이 들어섰다, 화랑으로는 국내 최대인 가나아트센터가 98년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평창동은 미술과 예술의 거리가 되었다. 평창동 일대에 사는 미술인은 줄잡아 100명도 넘는다고 한다.

평창마을길에서 찾은 보물은 드라마에 나왔다는 멋진 카페도, 연예인이 산다는 개성 있는 집도 아닌 미술관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와 다른 눈으로 둘레길 걷고, 보고, 즐기기, 멋진 하루였다.



열세번째 이야기.

월출산 국립공원을 다녀오며

한예주

장려상

2015년 5월 23일 생태관광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출산국립공원에 가보았어요. 10년 동안 광주에서만 살았던 저는 무등산은 알았지만 월출산은 말로만 들었지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저는 여기에 가면서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였어요. 깃대종이 무엇인가 했는데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래요. 남생아 놀아라 노래는 아는데 실제로 남생이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남생이 대체서식지에서 처음으로 남생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남생이는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남생이가 환경이 오염되서 집을 잃어 대체 서식지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여기에는 붉은귀 거북이도 사는데 그 거북이는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엄마한테 거북이 사달라고 안 조를거에요. 남생이 말고 월출산 깃대종 끈끈이주걱도 보고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본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은 남생이 화석 만들기였어요. 끈끈이주걱 화석 만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남생이 화석을 만들었어요. 찰흙이 좀 많아서 하나 더 만들어서 동생도 줬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자연관찰로라는 곳에 가서 산책도 하고 오감체험놀이도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나무랑 식물들이 없고 빌딩이랑 아파트만 있는 곳이라서 오랜만에 숲에서 뛰어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중에는 구름다리도 올라가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겠지만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 너무 간지러웠지만 학교에 다시 가기 싫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또 가고 싶어요 .

나중에는 끈끈이주걱도 보고 싶어요. 파리지옥은 집에서 키워서 본 적은 있지만 끈끈이주걱은 주걱같이 생겼다는데 상상이 잘 안되요. 제가 나중에 월출산에 가면 꼭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생태관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같이 도시사는 친구들 한테도 숲을 체험하게 하니까 좋은것 같아요.



열네번째 이야기

내 생태관광의 시작점

하진우

장려상

첫인상?

'생태'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를까? 나 같은 경우는 자연, 보존, 동식물 등의 단어들과 초록색채의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 한편으로 '관광' 이라는 단어는 어떤가? 관광버스, 해외여행, 즐거움 등의 단어들과 다채로운 밝은 색채의 이미지가 다가온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단어를 합쳐 '생태관광'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처음에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약간의 이상함이 느껴졌다. 생태는 자연 보호적, 친화적이라면 관광은 인공적, 훼손이라는 생각과 많은 인터넷 기사, 뉴스에서 볼 수 있듯 관광으로 인해 자연경관 등이 파괴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라는 느낌은 여행시작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다. 생태관광에서 내가 배우고 또 확실하게 느낀 점은 이렇다.

Win-Win!

내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이 '주니어레인저' 활동을 시작한 후 자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일부를 자연에서 보내는 것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연이 어떠어떠하며 최근 자연 훼손 등 안타까운 사례,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국립공원의 프로젝트 등을 보며 자연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 원인은 항상 동일했다. 인간의 부주의, 인간의 실수, 인간의 무관심이였다. 예를 들어 이번 여행코스의 일부 장소인 노고단은 1900년대에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노고단 자연 복구 작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탐방 금지이다. 이처럼 사람의 손길을 막으면 자연은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으면 보존되는 것이다. 항상 자연은 여러 숲이나 공원 복원 프로젝트를 보아도 인간의 출입을 막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두면 대부분 다시 자생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생태관광이라? 친환경적으로 관광을 한다는 것일까? 처음 든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지?'이었다. 인간 그 자체로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면서 관광이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먼저 생태관광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생태관광을 생각하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느끼며, 야외에서 휴양을 즐기고 누리는 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데 기본을 둘 것이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관광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낸다면 지역주민들 역시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은 '색다름'이었다.

자연의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 거기에 관광객이 느끼는 즐거움까지 더하면 정말 관광객, 주민, 자연 모두가 Win-win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생태관광객들이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식재료 등을 미리 사오는 것이 아닌 지역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든 관광은 자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실히 이번 생태관광을 하며 느낀 것은 색다름 속에 또 다른 즐거움이다. 미리 챙겨가던 식재료를 귀찮지만 직접 시장에서 사고 상인들과 교류하며 말이다. 지역 프로그램을 찾다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알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추억을 쌓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생태관광을 할 생각이 들었고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좀 더 뜻깊다고 생각된다. 내 생애의 첫 생태관광이기 때문이다.

내 첫 생태관광의 첫날, 색다름

그렇다면 이젠 내가 방문하고 탐방한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이번 첫 생태관광의 목적지는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이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3개의 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



립공원으로 알고 있다. 그중 우리 단체는 구례 쪽의 국립공원을 방문키로 하였다. 과거 초등학생 때 나는 구례 윗동네 남원에서 살았었다. 남원 역시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었고 나는 자주 지리산에 갔었기에 매우 익숙하면서 친근한 분위기로 출발 할 수 있었다.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섬진강에서 먼저 래프팅을 하게 됐다. 생태관광의 취지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과 동시에 우리의 나이가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래프팅이 매우 좋다 생각했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고 결과는 정말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섬진강 중류를 따라서 래프팅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물에 젖고 즐기며 정신없어 놀았다. 실수로 동생 하나를 울리는 상황도 발생해서 당황하기도 하였고 숨이 차게 노를 저으며 다른 팀과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즈음엔 모두가 힘이 빠져 보트를 물결에 맡겼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맑은 하늘이 처음 눈에 밟혔고 그 다음으로 섬진강을

안고 있는 듯 한 산자락이 강 위에 떠있는 우리를 감싸 안는 느낌을 받으며 정말 아름다웠던 것이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오른다. 이번 여름캠프에서 정말 추억으로 담아가고 싶은 체험이였다. 훗날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것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금세 친해진 래프팅 담당자 선생님도 지금 이 글을 쓰며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서로가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멋진 활동인 것 같다. 그렇게 힘들었던 래프팅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장을 보러 갔다. 생태관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식재료를 미리 사오지 않고 시장에서 사기로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시장을 가기에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시장이 아닌 그 지역 식료품 판매점을 간 것은 아직도 아쉽다. 나 같은 경우는 요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식료품 사는 것을 매우 귀찮아 한다. 특히 당장 먹을 저녁거리.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재미일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장은 집 근처 마트를 간 것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우리가 다 같이 요리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서 장을 보는 것 자체로 정말 재미있었고 새롭고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장 보는 것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을 숙소로 정했는데 그 건물이 주는 느낌은 '오묘함'이였다. 건물이 산자락과 비슷하게 곡선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나무의 색깔인 고동색, 갈색을 많이 사용했다. 그 건물 자체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오묘했고 조화로웠



다. 내부 역시 자연과 정말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자체 역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신기했다. 숙소에 짐을 놓으러 갈 때 한 가지 큰 기대를 품고 들어갔는데 바로 '별구경'이다. 내 집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아도 별은 정말 한 두 개 밖에 볼 수가 없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국립공원 근처에 옮겨 다니며 지냈을 적엔 항상 하늘을 보면 수백, 수천개의 별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릴 적 꿈이 우주비행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밤에 잠시 나왔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비구름에 가려져 볼 수가 없었다. '내일은 보이겠지' 하며 잤는데 두 번째 날 밤 역시 볼 수가 없었다. 아무튼 첫 번째 날 밤에는 래프팅을 해서 그런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바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내 첫 생태관광의 두 번째 날, 자부심

그리고 일어나 밖에서 숨을 깊게 내쉬었는데 정말 상큼했다. 서울 공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침 식사 후 연수원 식당에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 하는 것을 보고 괜스레 부끄러워지고 아쉬웠다. 이것을 보고 다음 생태관광 때는 최대한 감안을 하고 식사 일정을 계획하기로 마음먹고 '내 밥그릇이라도 비워야지' 생각으로 깨끗이 먹었다. 그렇게 씁쓸 반 상큼 반으로 시작한 하루는 우리의 주요 일정인 노고단 등반으로 향했다. 노고단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등산지이다. 내 집 옆에 북한산보다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특히 오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추억은 주니어레인저 2기 여름캠프 때 이다. 현재 우리 단체는 5기로 활동 중이며 난 1기부터 활동해 왔다. 3년 전인, 즉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2기 주니어레인저는 노고단 등반을 했다. 그때 당시는 형, 누나들과 함께 보살핌 받는 동생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올라가면서 힘들고 숨이 차오른 것이 기억나고 형들이 사진 찍는 포즈와 장면들이 떠올랐다. 이 추억이 감회가 남다른 것이 이번에 오를 때는 내가 가장 큰 형, 오빠로 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들이 잘 올라오나 계속 지켜봤는데 2기 형 누나들도 날 이렇게 봤을 거라는 생각에 형 누나들이 고맙게 느껴졌다. 노고단을 거의 다 올라와서는 형들이 찍은 사진을 똑같이 내 친구들과 찍어보았다. 우리가 성장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이 갑자기 더 보고싶어지고 그리워지는 순간이였다.

내 첫 생태관광의 마지막 날, 아쉬움

마지막 날은 아쉬움으로 시작했다. 다시 고등학생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친구들과 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즐기던 것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점. 순천시에 위치한 낙안읍성은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아주 보존이 잘되어있는 민속마을이다. 조금 다르고 특이한 점은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주민들이 민속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해설사분께 관청, 건물, 먹거리 등을 소개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조상 분들도 자연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을 중시했던 우리 조상님들은 높은 산의 정상과 관청의 지붕과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고 또 산세의 기세와 비슷하게 건물들을 지었다. 건물 자체로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5기 캠프는 낙안읍성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자연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난 내 수기의 제목을 '내 생태관광의 시작점'이라 지었다. 말 그대로 이번 여행은 나의 첫 생태관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내 여행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냥 관광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했다. '색다름', '오묘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으로도 모두 보람차고 기뻐했다. 생태관광을 무작정 시도하려고 한다면 불편하게 밖에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한 자연에 대해 배려라 생각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 그 불편한 상황 자체를 넓게 바라본다면 우리 같이 또 다른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을 회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내 첫 생태관광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기 캠프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꼭 우리 커서 한번 더 하자.' 이번 생태관광처럼 취지에 알맞게 여행을 하고 싶다. 우리의 일정을 봐도 첫날은 래프팅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두 번째 날은 자연경관 감상 및 등산, 세 번째 날은 지역 관광 명소 방문을 했다. 정말 계획대로 대부분 잘 된 것 같고 이 일정을 짜주시고 지도해주신 지도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 뿐이다. 다음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직접 일정을 정하고 싶다. 이번 여행역시 우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지만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찾기, 예약, 결제 등은 우리의 몫이 아니였다. 후에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직접하고 마지막에 느끼는 보람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 수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내 첫 생태관광의 글을 마친다.

"저는 이번 생태관광을 통해 진심으로 아주 큰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자연을 보호하고 즐기자 라는 생각 아래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고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자연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관광이라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기를 쓰면서 저는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글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아주 큰 추억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이라 분명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 역사, 문화를 체험하세요.

총 41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연생태(22종류), 문화생태(8종류), 건강생태(4종류), 농어촌생태(7종류)

사무소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참여문의
지리산	지리산국립공원 생태체험 학습	남사예담촌 탐방, 중산리 자연관찰로 탐방 및 해설	055-973-0399
지리산 북부	다같이 지리산 속으로	실상사 역사체험, 뱀사골계곡 힐링 트레킹, 상림 숲 견학	063-630-8900
	다같이 놀자 지리산 한 바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견학, 반달가슴곰 체험, 노고단 탐방	
지리산 남부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맛있는 치즈만들기, 천년고찰 화엄사	061-780-7700
	반달가슴곰과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성삼재 해설, 순천만탐방, 생태체험선 여행	
경주	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남산 힐링 걷기, 신라시대 화랑체험, 버드파크 탐방	054-778-4100
	세계 속의 경주	불국사 탐방, 한지 장신구 체험, 경주박물관 탐방	
계룡산	레인저와 함께하는 계룡산 생태탐방	수통골 해설, 백제문화단지 탐방, 공주박물관 견학	042-825-9597
한려해상	바다가 숨쉬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이락사, 첨망대 탐방, 앵강만 갯벌 생태해설	055-860-5800
한려 동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떠나는 자연여행	우제봉 탐방, 학동해설프로그램, 거제조선해양관 탐방	055-640-2400
	섬과 숲, 문화가 있는 한려해상 통영!	달아공원, 동피랑 벽화마을, 거북선체험관 탐방	
설악산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설악산 기행	설악산 탐방안내소 탐방, 신흥사역사해설, 비선대해설	033-636-8355
	오감만족!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누리	설악산탐방, 대암산 용늪 탐방, 대승폭포 해설	
속리산	속리산과 친구되기	오리숲 자연해설 , 승마체험, 법주사 해설	043-542-5269
	자연이 속삭이는 생태체험 여행	한지박물관 관람, 화양동 해설 , 화양서원체험	
내장산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내장산 네이처센터 탐방, 고창 운곡습지 탐방, 덕천사 탐방	063-538-7876
내장산 백암	비지향 가득한 백암골로 떠나는 여행	백양골 해설 , 백양사 탐방, 자연물 만들기	061-392-7088
가야산	가야산 역사문화 체험 100배 즐기기	팔만대장경 인경 체험, 해인사 탐방, 떡메치기 체험	055-930-8040
	가야산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어울림 마당	대장경테마파크 탐방, 우포늪 생태탐사, 쪽배타기 체험	
덕유산	1박2일! 덕유산 숲속여행	구천동 해설, 나무와 숲 체험 놀이, 곤도라 체험	063-322-3174

사무소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참여문의
오대산	자연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전나무 숲 해설, 에너지체험관, 허브나라 탐방	033-332-6494
	오대산 문화.생태 여행	어름치마을 탐방, 백룡동굴 탐험, 양떼목장 탐방	
주왕산	솔향기 따라 떠나는 주왕산 이야기	주왕계곡 트래킹, 국가지질공원 해설, 청송양수발전소 탐방	054-873-0024
태안 해안	let's go 태안해안 생태로드	태안해변길 트레킹, 서산버드랜드, 부석사 탐방	041-672-9738
	모두가 즐거운 태안해안 국립공원 탐방	기지포해설 , 자연공예 체험, 해변길 트레킹	
다도해	슬로시티, 청산에 살어리랏다	명품상서마을 체험, 슬로길 탐방, 여객선 체험	061-552-2176
	NatureHolic, 팔영산 건강과 예술을 품다	평촌명품마을, 나로우주과학관, 편백숲 체험	
다도해 서부	돌피니를 따라서	해양생물 관찰, 우이도 해설 , 야간 갯벌 관찰	061-284-9116
	나만의 열두가지 휴식	영산도 명품마을 탐방, 부뚜막 체험, 바다숲 힐링	
치악산	녹색 공간 속 치악산 힐링여행	금강소나무길, 학곡리 농촌 체험, 한지공예관 탐방	033-732-5231
	금대에코힐링캠핑장 마음산책 여행	금대계곡 물소리명상, 에코힐링캠핑, 자연놀이	
월악산	골뫼골 참살이 문화체험	골뫼골 명품마을 탐방, 손두부 만들기 체험, 농산물 수확	043-653-3254
북한산	레인저와 함께하는 북한산둘레길 트레킹	둘레길 해설 , 정릉 체험, 소나무 길 탐방	02-909-0498
북한산 도봉	도봉산자락 따라 떠나는 둘레길 도보여행	무장애 탐방로 걷기, 도봉산봉우리 해설, 자연물 만들기	031-828-8000
소백산	친구들아 떠나자! 소백산의 자연 속으로	피끝마을 역사 이야기, 찹쌀떡 만들기, 죽계구곡 해설	054-638-6196
소백산 북부	한드미야 놀자	삼굿구이, 한드미 마을 농촌체험, 머루따기	043-423-2449
	소백산북부 힐링캠프	태양계 탐방로 와식명상, 별빛 힐링프로그램, 약초 주머니 만들기	
월출산	공감! 남도문화가 어우러진 월출산 기행	남생이 관찰, 월출산 eco트래킹, 농촌 체험	061-473-5211
변산 반도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채석강 탐방, 내변산 에코트레킹, 청자박물관 탐방	063-584-8186
무등산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평촌마을 힐링여행	평촌 명품마을 탐방, 분청사기 전시관 탐방, 숲 속 힐링	062-230-2021
무등산 동부	무등산 주상절리를 찾아서	만연산 오감연결길 및 들국화마을 탐방, 자연체험	061-370-5733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관광 이야기
2015년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수기집

발 행 일	2015년 11월
발 행 처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86
발 행 인	이규성
기 획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현병관, 윤재은
제 작	디자인멘토 Tel. 02-2275-3040
문 의	Tel. 02-901-0771 (교육수련부)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Tel.1577-8866 www.me.go.kr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4층
Tel. 02-3279-2795 www.knps.or.kr